학생상담자원봉사가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On How Volunteering for Student Counseling Enhance the Volunteers' Parental Communication with Children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과

강사 황정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가족학과

박사과정 김현자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과

교수 최외선*

Dept. of family and Housing, Yeungnam Univ.

Instructor Hwang, Jeong-Hyang

Dept. of Home Management, Youngnam Univ.

Doctorial Course Kim, Hyun-Ja

Dept. of family and Housing, Yeungnam Univ.

Professor Choi, Wae-Su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volunteering for student counselling; conceptual differences between volunteers and non-volunteers as to volunteering, parental communication with children; and causal relations among the variables to influence parental communication with children. The study subjects are 191 volunteers and 195 non-volunteers for student counselling of Daegu city. The study instruments are measurements of communication, using SPSS 12.0 to produce frequency and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t-test, one way ANOVA, Scheffe's tes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 교신저자 : 최외선 (E-mail: chois@yumail.ac.kr)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ompared between volunteers and non-volunteers on their awareness of voluntarism and parental communication with children, it comes out that volunteers showed higher marks than non-volunteers on voluntarism, and open family communication.

Second, variables tha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on their awareness of voluntarism and parental communication with children, were volunteers and non-volunteers for student counselling, age, monthly income. it comes out that volunteers showed higher marks than non-volunteers on voluntarism, and functional communication.

Third, factors influencing parental communication with children turn out to be age, volunteers and non-volunteers, awareness about voluntarism. In other words, volunteers with lower age, higher awareness for voluntarism, and volunteers displayed a higher degree of open family communication.

주요어(Key Words) : 학생상담자원봉사(volunteering for student counseling), 부모-자녀간의사소통 (parental communication with children), 자원봉사의식(awareness of voluntarism)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현대인들은 사회구조, 가치관, 의식체계가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현 시대에서는 각 발달 영역별 역할에 개인의 기능이 다방면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각 발달단계별로 자신들의 정체성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 중에 청소년기나 중년기는 한 가정 내에서 과도기적 변화를 같이 경험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으며 중년기의 기혼 여성들 중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경우는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의 생활에 익숙한 상태이고 자녀의 나이는 청소년기란 특성을 가진 시기와 맞물려 있다. 이 시기의 주부들은 부모로서 겪는 다양한 변화의 위기, 즉 자녀들이 심리적 독립을 요구하기도 하고 가족으로부터의 심리, 정서적 유대 약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 때 심리적, 신체적으로 변화를 경험하며 자아를 재평가해 보기도 하며 자녀관계, 부부관계 등 가정생활에 적응하면서도 때로는 정서적 혼돈과 갈등을 겪고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송명자, 1995).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되돌아보며 새로운 사회활동참여를 위하여

취미, 부업, 운동, 봉사활동 등을 통한 사회, 집단속으로 활동영역을 넓히려 하고 자신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데 그러한 활동의 하나로 봉사활동이 한 방안이 되고 있다(김인영, 2000; 안재숙, 1998; 이선희, 2001; 홍승혜, 1995; Schindler-Lippitt, 1989). 위와 같은 연유로 기혼여성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고자 할 뿐만 아니라 자녀관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을 모색하게 되는 데, 그 같은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것이 학생상담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학생상담자원봉사활동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상담봉사활동이어서 청소년을 이해하는 데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에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학생상담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연구는 거의 대부분이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김동은, 2005; 안재숙, 1998; 최옥희, 2006)가 주류를 이루었고, 자아존중감(김예숙, 2003), 자원봉사만족도(이선희, 2001; 홍인희, 2006), 지속성(김선미, 2005; 박소영, 2005; 유옥현, 2002), 역할수행(김정옥, 2002), 진로성숙(박기출, 2001)에 관한 연구로 학생상담자원봉사자의 전반적인 활동 현황을 보여주는 기초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을 뿐이다.

한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는 자녀의 문제행동(김경화, 1989; 노정화, 2002; 장미숙, 2000, 차은진, 2003), 학업성취(백수정, 2006), 자아존중감(김인옥, 2006; 박은민, 2001) 및 자아정체감(김남희, 2000), 인성 특성(권은정, 1996), 인터넷 및 채팅 중독(고은옥, 2006; 김귀숙, 2006)에 관한 것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학생상담자원봉사활동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는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이는 학생상담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는 고학력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교육을 통해 배출하므로 그 수가 적어 연구에 제한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된다. 따라서 학생상담자원봉사활동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는 학생상담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매우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특히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서로의 생각, 감정, 태도를 전달해 주는 정서적 과정(김미애, 1997)으로 자녀의 출생과 함께 시작되어 죽을 때까지 계속되며, 긍정적인 의사소통의 기초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점차 형성된다.

부모 자녀 간에 기능적인 의사소통이 이뤄질 때는 서로 간에 자신들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상호작용에서 억압받지 않고 지지와 공감, 긍정적인 자세로 경청해 주어서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세대 간의 격차에서 오는 것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므로 부모-자녀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반면에 효과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는 대체로 부모가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특히 이중메시지로 대화하거나 자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충고나 지시로 부모-자녀관계를 차단시켜 버리게 한다. 더군다나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자율성을 획득하려는 욕구로 인해 부모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갈등이 증가하기 쉬우므로(고영규,

1993; 김주분, 1994; 박금남, 2000; Ginott, 1980), 원만한 부모자녀관계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Satir(1972)는 건강한 가족은 의사소통이 직접적이고 명백하고, 규칙은 융통성이 있으며 사회와의 연결이 개방적이고 희망적인 반면에 병리적 가족은 의사소통이 간접적이며 애매모호하고 불분명하며, 규칙들은 엄격하고 비인간적이며 융통성이 없고 사회와의 연결을 맺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원만한 부모자녀 관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학생상담자원봉사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자원봉사활동 영역 중 학생상담만을 전문으로 하는 학생상담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의식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수준을 알아보고, 나아가 배경변인에 따른 자원봉사의식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학생상담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의식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본다.

둘째, 배경 변인에 따른 자원봉사의식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다.

셋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본다.

II. 이론적 배경

1. 학생상담자원봉사

자원봉사활동영역 중에 학생상담자원봉사활동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상담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으로 지역의 고학력 여성인력을 활용하여 상담에 관련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한 뒤 지역의 학교에 배치하여 중·고등학생들의 여러 문제 상황에 대한 도움을 상담방식으로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학교상담은 학생들에게 건강한 인생목표를 발달시키고, 목표를 달성할 행동을 습득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획득하도록 돕기 위해 설계된다(노안영, 2000).

자원봉사활동의 종류와 역할은 매우 다양하고 봉사를 받는 대상자들 또한 다양하다. 학생상담자원봉사활동의 주 대상은 청소년이므로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와 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 활동이다.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청소년이 겪는 부적응 등은 그들이 달성해야 할 발달과업에 영향을 주고, 한 개인의 발달과업의 성취여부는 개인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사회문제로 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외국에서도 예방적 차원의 조기개입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으며 그 대안이 상담활동이다. 즉, 학생상담자원봉사활동은 지역사회의 고급유휴인력을 활용하여 지역 학생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상담자원봉사활동이다.

부모가 자녀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능력발달의 결손이 심각한 경우 이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기능을 일차적으로 학교가 맡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교교육은 가정교육의 결함을 보충하고 교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는 하나 부족한 점이 많고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개성과 능력차를 고려한 교실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어 부족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상담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가정, 학교,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주어지지 못한 부분을 자원봉사 중 전문성을 살린 상담이 청소년의 발달과정 또는 주변 환경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조기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학생상담활동은 좋은 대안이 되고 있고(김동은, 2004), 외국의 연구 결과에서도 학생상담이 학생들의 학교생활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Ann, 1990; Avcock, 1989).

학생상담자원봉사활동은 비교적 정상범위의 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부적응문제에 대해 치료적 차원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 상담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 같은 학생상담자원봉사제도는 청소년 문제에 대한 조기 개입의 일환으로 1985년 3월 국무총리 행정 조정실 청소년 대책위원회에서 청소년 문제 종합대책에 관한 추진계획이 발표되면서 동년 4월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구체적인 학교상담 활성화 방안을 시달하였다. 1985년 5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생활지도 상담부에서 실험 운영하기 시작해 1986년에는 부산, 대구지역, 1987년에는 인천, 광주, 강원지역, 1988년에는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89년에는 전국 각 시·도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학생상담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생상담자원봉사자들은 참여 동기의 89.9%가 자녀관계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여 학생을 상대로 하는 상담의 특수성을 자신들의 자녀 관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동은, 2004;

안재숙, 1997; 이선희, 2001). 또한 학교 내 학생들의 입장에서 상담을 받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을 조사한 이동혁(1999)과 Avcock(1989)의 연구에서 상담을 이용한 학교의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비교적 많은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학생상담이 봉사자 자신에게는 물론 자녀관계 또는 상담을 받는 청소년들에게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상담자원봉사자들의 개인적인 특성 연구로는 40대 여성의 비율이 높고 종교가 있는 고학력자들로 나타나 학생상담자원봉사활동이 자기 만족도를 높여주고 자녀관계에도 도움이 되는 내적 성장의 기회가 되는 활동임을 보고하였다(안재숙, 1997; 유옥현, 2001; 이선희, 2001).

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의사소통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것이며 가족원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상호반응적 과정일 뿐 아니라 가족기능수행에 있어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Galvin & Brommel, 198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을 “부모와 자녀사이의 상호작용에서 감정, 느낌, 생각, 태도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상호간의 공통적 이해를 도모하는 상호반향적 과정이라 정의할 수 있다. 즉 자녀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간의 공통적 이해를 도모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가치를 부모에게 표현하고 자신의 의사를 왜곡됨이 없이 전달하므로 내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의사소통을 통한 부모와의 경험공유를 통해 상호관계 확립 혹은 관계 확인에 자신감 및 안정감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자녀와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중요하게 여겨 지지만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청소년기 자녀의 역할조망과 자아정체감 형성, 도덕성 발달, 가족으로부터의 심리적 이유 등 자녀의 인성이나 행동발달 및 성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의 청소년기에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대한 새로운 기술 개발이 기대되어 지기 때문에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특히 관심이 대상이 되는 것이다(권혜진, 1993; 민하영, 1991; 이혜숙, 1998).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연구되어졌다. 의사소통 유형이란 전달된 메시지의 내용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메시지의 전달방식이나 전달과정을 중요시하는 것으로서, 성원 상호간의 밀접한 감정교류와 개인의 생각이나 관심 등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언어적 상호작용의 전달방식이라 할 수 있다(김수현, 2003).

Barnes와 Olson(1982)은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을 순환모형에 기초하여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기능적인 수준이 되도록 도와주는 개방형 의사소통과 이를 방해하는 문제형 의사소통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개방형 의사소통은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상호작용에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는 의사소통을 말하는 것으로 자녀의 정서발달이나 문제 행동 유발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부모-자녀간의 갈등에서도 극단적인 방향으로까지는 가지 않게 된다(장미숙, 1999). 반면에 문제형 의사소통은 주제 선택에 조심스러우며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자녀와의 갈등이 증폭되고 문제도 많이 야기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김윤희, 1990; 김주분, 1994; 민하영, 1991; 정명희, 1998).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기능적일수록 자녀의 정서발달이나 가족 간의 응집성과 적응성에 도움이 되며 문제행동이 적어지고,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하면 부모-자녀간의 대화시간이 줄어들며 문제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방식은 부모-자녀관계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Beaubien은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메시지의 선택, 메시지의 전달, 피드백 요소를 특정범주로 나누어 의사소통으로 분류하였다. 그는 청소년의 대화 행동과 어머니의 반응을 관련지어 쌍방 차단형, 자녀차단-어머니 개방형, 자녀개방-어머니 차단형, 쌍방 개방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김수현, 2003 재인용). Gordon(1975)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애정과 존경을 바탕으로 한 절친한 관계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을 나-메시지와 너-메시지로 구분하였다. 나-메시지는 자녀의 행동에 부모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전달함으로써 부모의 입장과 느낌을 알려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가 어떤 감정을 품고 있을 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한다. 반면에 너-메시지는 명령, 경고, 설교 등의 형태로써 자녀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또는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라는 식의 해석을 하게 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나 전달법의 개인지향형 의사소통 방법은 부모-자녀간의 관계가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식시켰다(Rimm & Markle, 1977).

Gordon(1975)은 모든 심리치료가 상담은 환자나 내담자를 하나의 독립된 개인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의사소통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부모는 자녀의 인간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촉진적, 치료적 의사소통기법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촉진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자녀의 심리치료 및 인간성장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의사소통적 접근의 가족치료자들은 가족의 왜곡된 인간관계는 역기능적 의사소통 양식을 반영하여 올바른 인간관계 정립에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하면서 가족의 의사소통 장애와 아동의 부적응 행동 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밝혀 부모의 의사소통 형태가 자녀에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하였다(마정진, 1988).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 대해 Campbell(1963)은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은 가족들에게 자신의 정보나 의도를 알림으로써 어떤 문제에 대한 오해나 갈등을 해소시켜 주고 가족구성원 특

히, 부모-자녀간의 수준 높은 대화가 자녀의 정신건강 뿐만 아니라 학습효과를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부모의 의사소통 방식에 따라 자녀에게 지지와 이행의 메시지가 되므로 자녀의 학습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윤혜경, 1990 재인용). 이것은 부모의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의사소통 반응양식이 자녀로 하여금 학습을 촉진시키는 한 방법으로 동기유발로 작용되므로 그와 같은 연구결과에도 의미를 둘 수 있는 것이다. 가정은 사랑에 의해 형성되는 가장 기초적인 인간 집단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가치관, 사회규범을 습득시키는데 이런 과정에서 부모-자녀 상호간의 갈등을 만들기도 하고 풀어나가기도 하므로 의사소통 유형은 매우 중요하다. 조은경(1992)은 부모와의 대화시간 부족,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은 부모와의 갈등을 초래하고 자녀의 인성과 정서적 발달에 강박증, 불안, 히스테리 등의 장애를 가져와 올바른 사회화 과정을 겪지 못하게 해 대인관계 및 사회집단에 부적응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하였으며, 고영규(1993)는 어머니의 의사소통수준이 효과적이지 못하고 갈등이 생기는 것은 대부분의 부모들이 장애적인 언어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과거 답습적 자녀양육 방법과 성인 중심적 인간관으로 자녀를 대했을 때 자녀의 자아정체감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다고 했다. 즉 세대 간의 간격을 좁히고 바람직한 표현법을 사용한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 문제 행동과의 관계연구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느낌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사소통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부모는 자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자녀가 말하는 의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감정이입의 대화기술을 사용하여 세대 간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할 때 부모-자녀의사소통관계가 발전됨을 시사했다(김수현, 2003; 장미숙, 1999).

선행 연구에서 보듯이 기능적인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자녀를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주고 역기능적인 부모-자녀의사소통은 문제나 갈등을 초래하므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내용면이나 방법적인 측면에서 보다 질적인 전환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대구광역시 학생상담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봉사자들과 학생상

담봉사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2006년도 학생상담자원봉사자들의 보수교육일을 택해 관계자들의 협조를 얻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무기명 형식이어서 보수교육일 날 참석자들에게 한 부씩 나누어 주며 보수교육이 끝나는 시간에 다시 회수하였다.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자 중 참석자 24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191부를 회수하여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학생상담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일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은 학생상담자원봉사자와 같은 조건을 갖춘 전문대졸 이상의 청소년기 자녀를 가진 주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총 280부를 배포하여 197부를 회수하였고, 그 중 기재가 미비한 것을 제외한 195부만을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학생상담자원봉사자(이하 자원봉사자로 칭함)와 비자원봉사자의 일반적 사항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N=386

변 인	구 분	자원봉사자	비자원봉사자	전 체
		N(%)	N(%)	N(%)
연 령	30대	15(7.9)	32(16.5)	47(12.2)
	40대	125(66.1)	135(69.6)	260(67.9)
	50대	46(24.4)	27(13.9)	73(19.1)
	60대	3(1.6)	0(.0)	3(.8)
학 령	전문대	19(9.9)	70(35.9)	89(23.1)
	대학	136(71.2)	95(48.7)	231(59.8)
	대학원	36(18.9)	30(15.4)	66(17.1)
종 교	천주교	53(28.1)	49(25.1)	102(26.6)
	기독교	51(27.0)	37(19.0)	88(22.9)
	불교	63(33.3)	70(35.9)	133(34.6)
	없다	22(11.6)	39(20.0)	61(15.9)
직 업	전문직	21(12.3)	16(8.3)	37(10.2)
	서비스직	3(1.8)	2(1.0)	5(1.4)
	사무직	3(1.8)	0(.0)	3(.8)
	생산기능직	1(.6)	0(.0)	1(.3)
	전업주부	126(73.6)	168(86.5)	292(80.4)
	자영업	10(5.8)	0(.0)	10(2.8)
	학생(대학원)	7(4.1)	8(4.2)	15(4.1)
월수입	300만원 미만	36(18.8)	53(27.2)	89(23.1)
	400만원 미만	46(24.1)	54(27.7)	100(25.9)
	500만원 미만	52(27.3)	82(42.0)	134(34.7)
	500만원 이상	57(29.8)	6(3.1)	63(16.3)

* 무응답의 경우 결측치로 처리하여 사례 수에 다소 차이가 있음.

2. 연구 도구

1) 자원봉사의식 척도

자원봉사의식 척도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제작한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식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항상 그렇다' 5점을 주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원봉사의식이 긍정적임을 나타낸다. 자원봉사의식 척도의 신뢰 계수는 Cronbach α =.862다.

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척도

본 연구에 사용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척도는 Barnes & Olson(1982)의 척도를 사용한 민혜영(1990)의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척도는 기능적인 의사소통 9 문항, 역기능적 의사소통 9문항으로 모두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능적 의사소통(open family communication)은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으며 보다 자유로운 감정 하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측정한다. 역기능적 의사소통(problems in family communication)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 상호작용이 부정적이고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부정적인 측면을 측정한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식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 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항상 그렇다' 5점을 주었다. 따라서 기능적 의사소통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긍정적, 개방적임을 의미하고, 역기능적 의사소통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부정적, 폐쇄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기능적 의사소통의 Cronbach α 계수는 .807,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Cronbach α 계수는 .785, 부모자녀의사소통 전체의 Cronbach α 계수는 .862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SPSSWIN 12.0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질문지 구성을 위해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검증(Cronbach α)을 실시하였다. 배경 변인에 따른 자원봉사의식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t-test,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 검증으로 Scheffé-test를

실시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학생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의식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일반적 경향

학생상담자원봉사자와 비학생상담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의식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학생상담자원봉사자($M=3.99$)가 비학생상담자원봉사자($M=3.74$)보다 자원봉사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능적 의사소통($t=2.521, p<.05$)에서는 학생상담자원봉사자($M=3.44$)가 비학생상담자원봉사자($M=3.32$)보다 기능적 의사소통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역기능적 의사소통에서는 비학생상담자원봉사자($M=2.32$)가 학생상담자원봉사자($M=2.21$)보다 역기능적 의사소통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학생상담자원봉사자와 비학생상담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의식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수준
N=386

변 인(구분)		학생상담자원봉사자	비학생상담자원봉사자
		M(SD)	M(SD)
자원봉사의식		3.99(.433)	3.74(.546)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기능적 의사소통	3.44(.399)	3.32(.486)
	역기능적 의사소통	2.21(.490)	2.32(.548)

2. 배경변인에 따른 자원봉사의식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차이

배경변인에 따른 자원봉사의식,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자원봉사유무, 연령, 학력, 종교, 월수입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자원봉사의식,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하고 사후 검증으로

Scheffe's test를 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자원봉사의식에서 차이를 나타낸 변인은 자원봉사유무, 월수입이며, 기능적 의사소통에서는 자원봉사유무, 연령이며, 역기능적 의사소통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원봉사의식에서는 자원봉사유무($t=4.258$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학생상담자원봉사자($M=3.99$)가 비학생상담자원봉사자($M=3.74$)보다 자원봉사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수입($t=5.011$ $p<.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월수입이 500만원 미만인 집단($M=3.97$)이 400만원 미만인 집단($M=3.76$)보다 자원봉사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적인 의사소통에서는 자원봉사유무($t=2.521$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학생상담자원봉사자($M=3.44$)가 비학생상담자원봉사자($M=3.32$)보다 기능적 의사소통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t=7.767$,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30대 집단($M=3.47$)이 40대 집단($M=3.16$)과 50대 집단($M=3.16$)보다 기능적인 의사소통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배경변인에 따른 자원봉사의식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차이검정

N=387

변인	구분	N	자원봉사의식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기능적			역기능적		
			M(SD)	t(F)	M(SD)	t(F)	N	M(SD)	t(F)	
자원봉사 유무	유	174	3.99(.433)	4.258***	177	3.44(.399)	2.521*	174	2.21(.490)	-1.920
	무	195	3.74(.546)		193	3.32(.486)		194	2.32(.468)	
연령	30대	46	3.85(.433)	1.074	44	3.47(.382)a	7.767***	45	2.22(.271)	.046
	40대	260	3.85(.546)		251	3.16(.344)b		249	2.24(.337)	
	50대	75	3.95(.480)		75	3.16(.287)b		75	2.23(.334)	
학력	전문대	89	3.84(.607)	1.226	87	3.16(.400)	.467	83	2.22(.325)	1.335
	대졸	228	3.85(.489)		224	3.19(.320)		227	2.25(.322)	
	대학원	66	3.96(.497)		61	3.16(.353)		61	2.17(.351)	
종교	천주교	101	3.93(.506)	2.196	102	3.25(.341)	1.348	98	2.23(.394)	.012
	기독교	88	3.91(.521)		82	3.16(.350)		82	2.24(.293)	
	불교	131	3.86(.495)		127	3.18(.358)		129	2.24(.294)	
	없다	61	3.73(.585)		60	3.12(.316)		60	2.23(.336)	
월수입	300만원 미만	89	3.77(.558)	5.011**	85	3.20(.419)	.336	87	2.25(.362)	1.873
	400만원 미만	100	3.76(.523)a		99	3.19(.324)		95	2.23(.321)	
	500만원 미만	134	3.97(.472)b		131	3.16(.323)		132	2.19(.320)	
	500만원 이상	63	3.97(.512)		57	3.20(.310)		57	2.31(.292)	

a, b 서로 다른 문자 간에는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 $p<.05$, ** $p<.01$, *** $p<.001$

3.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연령, 월수입을 외생변수로 하고 자원봉사유무, 자원봉사의식을 내생변수로, 기능적인 의사소통,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종속변수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명목변수(자원봉사유무)는 가변수 처리하였으며,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의 결과 변인 간에 상관관계는 .005 ~.549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이용하여 회귀식에 포함된 변인들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한 결과 계수가 1.089~1.971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4> 자아분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

N=386

변인	자원봉사유무		자원봉사의식		기능적 의사소통		역기능적 의사소통	
	B	β	B	β	B	β	B	β
연령	.154	.179***	.036	.040	-.159	-.198***	.107	.114*
월수입	.043	.174***	.038	.148*	-.006	-.028	-.001	-.005
자원봉사 유무					.139	.152*	-.122	-.115*
자원봉사의 식					.283	.321***	-.289	-.283***
상수	2.063		3.569		2.593		3.253	
F 값	13.563***		3.570*		13.297***		8.639***	
adjusted R ²	.062		.018		.145		.099	
D-W	.126		1.372		1.945		1.835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먼저 자원봉사유무의 경우, 연령($\beta=.179, p<.001$), 월수입($\beta=.174, p<.001$) 순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6.2%이었다. 즉 연령과 월수입이 자원봉사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학생상담자원봉사자가 비자원봉사보다 연령이 높고, 월수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의식의 경우, 월수입($\beta=.148, p<.05$)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8%이었다. 즉 월수입이 많을수록 자원봉사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적 의사소통의 경우, 자원봉사의식($\beta=.321, p<.001$), 연령($\beta=-.198, p<.001$), 자원봉사유무($\beta=.152, p<.05$) 순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4.5%이었다. 즉 자원봉사의식이 기능적 의사소통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며, 연령, 자원봉사유무도 기능적 의사소통을 설명하는 주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자원봉사의식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

을수록, 그리고 학생상담자원봉사자가 비학생상담자원봉사자보다 기능적 의사소통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경우, 자원봉사의식($\beta=-.283, p<.001$), 자원봉사유무($\beta=-.115, p<.05$), 연령($\beta=.114, p<.05$) 순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9.9%이었다. 즉 자원봉사의식이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며, 연령, 자원봉사유무도 기능적 의사소통을 설명하는 주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자원봉사의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비학생상담자원봉사자가 학생상담자원봉사자보다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학생상담자원봉사가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대구광역시 학생상담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 자녀를 둔 전문대졸 이상의 학생상담자원봉사자 191명과 학생상담자원봉사자와 같은 조건의 갖춘 전문대졸 이상의 청소년기 자녀를 가진 주부 1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WIN 12.0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배경 변인에 따른 자원봉사의식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t-test,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사후 검증으로 Scheffé-test를 실시하였으며,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학생상담학생상담자원봉사자와 비학생상담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의식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일반적 경향

학생상담학생상담자원봉사자가 비학생상담자원봉사자보다 자원봉사의식과 기능적 의사소통 수준이 높고, 역기능적 의사소통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인 학생상담자원봉사자의 연령은 4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대부분이 대졸이상

의 고학력자들이다. 또한 월수입은 300만원 이상이 81.2%로 나타나 도시가계기준 평균 월 소득이 278.8천원(통계청 2005 2/4분기 가계지수동향)인 것과 비교해 보면 학생상담자원봉사자는 도시평균 월 소득 이상인 고소득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학생상담자원봉사자는 전문적인 상담교육을 통해 효율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기 때문에 비학생상담자원봉사자에 비해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Cnana과 Cascio(1999)는 자원봉사활동이 이타심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자원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자신에게 주는 만족감이 더 많이 작용한다고 했고, 조휘일(1990)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타적 행위의 강도가 증가함으로써 연령이 높을수록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많다는 연구결과(김미성, 2002; 김용자, 1984; 장묘옥, 1992)가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 해준다.

이와 같이 학생상담자원봉사활동은 자녀와의 의사소통 개선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여성 스스로 일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여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

2. 배경변인에 따른 자원봉사의식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차이

자원봉사의식에서 차이를 나타낸 변인은 자원봉사유무, 월수입으로, 학생상담자원봉사자가 비학생상담자원봉사자보다 자원봉사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월수입이 400만원~500만원 미만인 집단이 300만원~400만원 미만인 집단보다 자원봉사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 소득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서 각 개인의 문화생활이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권현수(2005)의 연구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 및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은 이미 전 세계가 공통으로 인식되고 있어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하였고, 86아시아게임, 88올림픽을 기점으로 하여 2002월드컵, 2003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자원봉사활동을 일깨워 줄 행사들이 많아 일반인들 모두에게 자원봉사 의식에 대한 생각을 고양시키는 기회가 많이 되었다(권복순, 2002; 배기효, 2003; 심정희, 2006).

이들 학생상담자원봉사자들의 경우를 보면 한번 행사에 참여한 자들이 다시 이런 대회에 자원봉사활동자로 활동을 하고 있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의식은 자원봉사활동참여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비학생상담자원봉사자보다

자원봉사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에 대한 전체적 의식이 높아지고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기능적인 의사소통에서는 자원봉사유무, 연령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역기능적 의사소통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학생상담자원봉사자가 비학생상담자원봉사자보다 기능적 의사소통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30대 집단이 40대 집단과 50대 집단보다 기능적인 의사소통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기 기혼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이 가족 간의 의사소통 정도에 긍정적인 기능을 미친다고 한 서병숙과 김혜경(2000)의 연구를 보더라도 본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고, 또한 적극적 부모교육을 받은 부모가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낸다고 한 류현정(2006)의 연구가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해 준다. 특히 본 연구대상자들은 학생상담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의사소통에 대한 이해를 습득하고 있어 비학생상담자원봉사자에 비해 기능적 의사소통을 많이 배우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으며,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잘 한다는 것은 대인관계가 그만큼 잘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상욱, 1990; 홍승혜, 1995).

3.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자원봉사유무에는 연령과 월수입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 학생상담학생상담자원봉사자가 비학생상담자원봉사자보다 연령이 높고, 월수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의식에는 월수입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월수입이 많을수록 자원봉사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적 의사소통의 경우, 자원봉사의식이 기능적 의사소통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며, 연령, 자원봉사유무도 기능적 의사소통을 설명하는 주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자원봉사의식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학생상담자원봉사자가 비학생상담자원봉사자보다 기능적 의사소통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경우, 자원봉사의식이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며, 연령, 자원봉사유무도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설명하는 주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자원봉사의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비학생상담자원봉사자가 학생상담자원봉사자보다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상담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갈등이나 문제를 자녀나 타인에게 전가하지 않으려는 신념체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고, 자원봉사활동 과정 중에서 자신의 미해결된 정서를 감정적이 아닌 이성적 판단의 도움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더

많이 접하게 된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이들이 인간관계에서 얻는 이득은 분명 자원봉사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많은 대인관계를 경험하게 된다.

이는 부모의 높은 자아존중감이 자녀와의 의사소통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낸다고 한 민혜영(1990)의 연구, 그리고 부모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한다는 장미숙(1999)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을 함으로써 대인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권지성, 1999; 김상욱, 1990; 김예숙, 2002; 홍승혜, 1995)들이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 해 준다. 이는 학생상담자원봉사활동 시 이수하는 교육 중에 자녀와의 의사소통기술을 배우고 있어 이것이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기능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부모에 대한 자녀의 태도는 기존의 애착 및 의존적 태도에서 벗어나 갈등 및 긴장관계로 전환되어진다. 이는 청소년기 자녀의 발달과업과 연계된 자연스런 관계 변화로 이 시기가 되면 기존 관계의 붕괴로 인해 상호작용 패턴과 역할의 재조정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통한 공통적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권위적이고 훈계적인 의사소통 양식에서 벗어나 자녀를 완전히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개방적이며 감정 이입적이고 지지적인 의사소통을 하려는 전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환 노력을 통해서만이 부모-자녀간의 긴장이나 갈등관계를 해소할 수 있고 부모-자녀간의 유대와 애착을 도모할 수 있으며 청소년기 자녀의 성공적인 발달과업 완수 및 바람직한 사회적 적응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자율성을 획득하려는 욕구로 인해 부모자녀관계가 소원해지기 쉬운 시기이므로 부모자녀간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중요하게 자리 잡는다(박금남, 2000; 민혜영, 1990). 특히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기능적이라면 부모가 개방적이며 감정이입적이며 지지적이고 긍정적이면서 적극적 경청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렇게 의사소통의 기능적인 관계는 부모-자녀 어느 한쪽도 기울어지지 않는 균형 잡힌 관계로 상호성장하는 바람직한 관계가 되는 것이다(이영분, 1983; 최경희, 1993; Goleman, 1995).

이와 같은 연구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상담학생상담자원봉사가 비학생상담자원봉사자보다 자원봉사의식과 기능적 의사소통이 수준이 높고, 역기능적 의사소통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원봉사의식에서 차이를 나타낸 변인은 자원봉사유무, 월수입으로, 학생상담학생상담 자원봉사자가 비학생상담자원봉사자보다 자원봉사의식이 높고, 월수입이 500만원 미만인 집단이 400만원 미만인 집단보다 자원봉사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적인 의사소통에서 차이를 나타낸 변인은 자원봉사유무, 연령으로, 학생상담학생상담자

원봉사자가 비학생상담자원봉사자보다 기능적 의사소통 수준이 높고, 30대 집단이 40대 이상 집단보다 기능적인 의사소통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능적인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연령, 자원봉사 유무, 자원봉사의식으로, 연령이 적을수록, 자원봉사의식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생상담학생상담자원봉사자가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고,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대상을 대구지역에 한정하였으므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서 부모만을 대상으로 제한된 변인만을 조사하였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고 부모와 자녀를 함께 조사함으로써 보다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영규(1993).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과 자녀의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은옥(2006). 부모 양육태도 및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아동의 인터넷 중독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복순(2002). 자원봉사의 이해.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소양연수 교재**. 대구광역시.
- 권은정(1999). 아동의 행동문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가족의 응집 및 적응.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혜진(1993). 모-자녀간의 의사소통양식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지성(1998). 자원봉사 참여형태에 따른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의 만족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현수(2005). 자원봉사관리의 중요성과 관리자의 역할. **제 7기 리더쉽 아카데미 교재**. 대구광역시 종합자원봉사센터.
- 김경화(1989).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귀숙(2006).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양육태도와의 관계연구.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남희(2000).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강릉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은(2005). 학생상담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성(2002). 여성의 자원봉사활동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애(1997).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및 가족체계 특성과 청소년의 성격 특성.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예숙(2003). 학생상담학생상담자원봉사자의 봉사의식과 자아존중감이 봉사활동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자(1984). 우리나라 여성의 자원봉사 참여 판별에 관한 분석. 아세아여성연구.
- 김윤희(1989). 부부관계,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기능과 청소년 자녀 비행과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영(2002). 노인학생상담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통일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욱(2006).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 자아존중감 및 참가자와 거짓자기의 관계 연구.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상옥(1995). 자원봉사활동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수, 권일남(1994). **청소년 수련활동 지도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선미(2005). 학생상담학생상담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지속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현(2003).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친구집단의 문제행동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옥(2002). 학생상담학생상담자원봉사자의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분(1994). 어머니-자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안영 역(2000). **학교상담**. 서울: 학지사.
- 노윤옥(2006).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정화(200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현정(2006). 적극적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마정건(1988).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자녀의 인성특성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민하영(1991). 청소년 비행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과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혜영(1990). Circumplex Model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청소년 자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금남(2000).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차이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기출(2001). 학생상담학생상담자원봉사자를 통한 진로상담이 남고고등학생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소영(2005). 학생상담자원봉사의 지속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유화(2001). 대학생의 가족응집성 및 자아분화 수준과 대학생활 적응도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민(2001). 대학생활적응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수정(2006). 또래상담 훈련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기효(2004). 자원봉사관리의 중요성과 관리자의 역할. **여성자원봉사리더쉽 아카데미교재**. 대구불런티어센터.
- 서병숙, 김혜경(2000). 중년기 기혼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139-153.
- 심정희(2006). 전문직 여성의 자원봉사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재숙(1997). 학생상담자원봉사활동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

-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경연(2005). 상담자 발달수준과 자아분화 및 역전이 행동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옥현(2001). 학생상담자원봉사 활동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혜경(1990). 부모-자녀간 커뮤니케이션과 자녀의 효행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숙(2005).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심리적 안정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전주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동혁(1997). 학생상담체계의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의 질적 차이에 관한 분석. 학생연구.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이영분(1983). 어머니 교육을 통한 부모-자녀간의 갈등개선에 관한 실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희(2001). 학생상담자원봉사활동 현황과 만족도 조사 분석. 계명대학교 여성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숙(199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양식과 자이존중감과의 관계연구-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미숙(1999).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 문제 행동과의 관계.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묘옥(1992). 상담학생상담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동기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명희(1988).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 문제 행동과의 관계. 성심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은경(1992). 부모 청소년자녀간의 대인거리, 심리적인 거리 의사소통이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희일(1990). 한국 사회복지 분야의 자원봉사행동 관련된 개인 및 조직특성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차은진(2003). 일반계 여고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희(1993). 부모교육프로그램이 부모의 의사소통수준과 부모에 대한 자녀의 지각에 미치는 효과.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옥희(2006). 학생상담학생상담자원봉사자의 활동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승혜(1995). 재가복지학생상담자원봉사자의 만족과 지속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인희(2006). 경기도 학생상담학생상담자원봉사자의 활동 현황 및 만족도 조사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nn, N. Y.(1990). Initiating an Ecosystem Model in School Social Work Practice: The Urban School Setting.

- Avcock, D. W.(1989). Educating the whole person: Avocational for counseling service of the christian College campus.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8, 38-44.
- Barnes, H, & Olson, D. H.(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Cnasa, R. A., & Cascio, T. A.(1999). Performance and Commitment: Issues in Management of Volunteers in Human Service Organizations, *Journal of Social Research*, 24.
- Galvin, K. M., & Brommel, B. J.(1982). *Family communication(Cohesion and Change)*. Illinois: Scott, Foresmand and Company.
- Ginott, H.(1980). Approach to parent education, In Fine, Marvin J.(Ed.), *Handbook on parent education*. 86-96. New York : Academic Press, Inc.
- Goleman, D.(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 Gordon, T.(1975). *PET: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New York : New American Library Inc.
- Satir, V.(1972). *People making*, Palo Alto. CA: Science & Behavior Books.
- Schindler-Rainman, E., & Lippitt, R.(1989). *The volunteer community*. NTL: Learning Resource Corporations.